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2010 시정방향

쾌적한 환경 · 창의적 교육 · 건강한 장수도시

녹색경쟁력지수 1위 대전

2009년 대전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국민적 인식한 한 해였으며,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가장 경쟁력이 높은 도시임을 인정받았다. 특히,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처음으로 국내 16개 시·도의 '녹색경쟁력지수'를 분석결과 대전이 전국 1위로 나타나 대전은 이제 명실상부한 환경 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녹색경쟁력지수는 녹색혁신을 위한 인적·조직적·지식적 인프라, 녹색혁신을 촉진하는 활동과 정책적·제도적 여건, 녹색경제·지식·환경성과 등 녹색혁신 성과를 각각 분석해 산출됐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식 인프라와 쾌적한 도시환경이 어우러져 빛어낸 결과다.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가 대전임을 새삼 공인받은 셈이다. 한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나아가 대전의 녹색혁신역량을 핵심(Core)으로 해 국가차원의 녹색혁신 확산을 주문했다.

녹색성장 원조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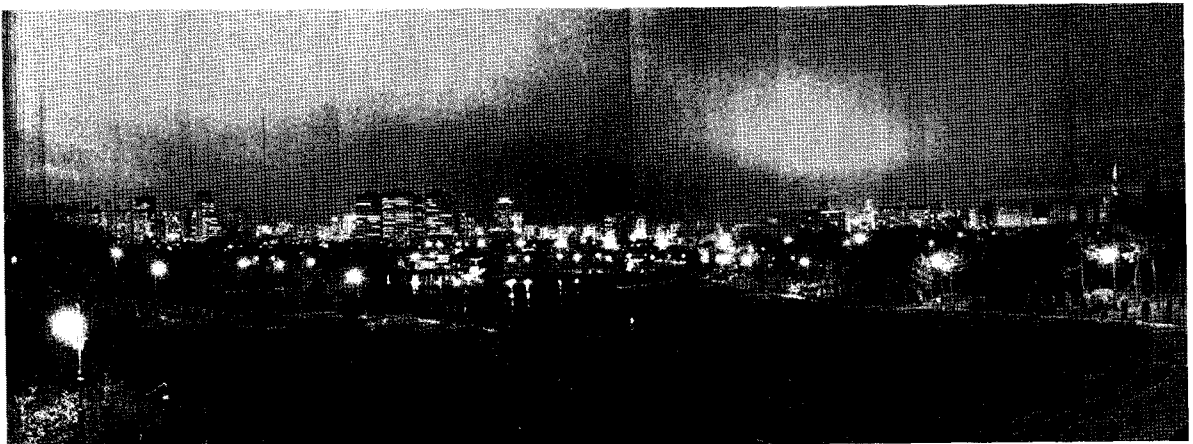
대전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기 이전부터 3천만 그루 나무심기, 3대 하천 생태복원,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등을 3대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녹색성장'의 원조도시로 불려왔다. 사람들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깨끗한 공기와 푸른 숲, 맑은 물을 찾아 휴가를 떠난다. 도심 속에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굳이 멀리 휴가를 가지 않아도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는 개인과 가족

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그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기업들은 생산시설이나 연구시설을 어디에 세우고 판매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세세하게 고려한다. 기업의 입지 선택적 관점에서 볼 때도 도시의 환경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특히 이런 환경적 가치는 모든 시민이 빈부의 격차를 떠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에도 부합한다.

나무와 하천, 자전거 등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못하면 생산 활동까지 규제를 받게 된다.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이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녹색보호주의에 따른 새로운 무역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시대에는 녹색융합기술이 강대국의 척도가 될 것이다. 환경과 과학이 결합된 '에코사이언스 시티(Eco-Science City)'가 바로 대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대전에 '녹색경쟁력 1위 도시'의 명예를 수여하면서 부여한 임무이기도 하다.

『슈퍼브랜드, '살기 좋은 도시』 산업정책연구원이 일반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물가나 환경, 편의시설, 교육여건, 교통접근성 등에서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냐'고 물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은 대전에 '살기 좋은 도시'라는 슈퍼브랜드를 수여했다.

슈퍼브랜드란 분야별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품이나 인물 등을 물어 가장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파워 1위에게만 수여된다. 대전은 지난해 처음으로 IMF 환란 이전의 실업률을 회복했고, 물가상승률, 어음부도율도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시



철도 1호선 완전개통과 56년 만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으로 교통여건이 훨씬 좋아졌다. 교육격차 해소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 사상 유례가 없는 학교 지원도 이뤄졌다.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을 열심히 해 준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전이 전국적으로 교육행복지수 2위 도시로 자리매김한 것은 지자체 차원의 학교시설 개선, 어학실·도서실 설치 등의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지수 1위 대전

대구경북연구원은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동성 등 4개영역 등 24개 지표를 활용해 사회통합지수를 분석하였다. 대전은 사회통합지수 8.9로 전국 1위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사회통합지수가 높다는 것은 사회적 배제와 빈곤문제를 극복하고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연대적 가치와 문화 창출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국민들이 대전 하면 떠올리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과학적·통계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특히 전국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도시이며 후원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것은 높은 시민역량을 한 눈에 보여 준다.

2010년 : 쾌적한 환경·창의적 교육·건강한 장수도시

2010년 대전시는 지난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녹색경쟁력지수』, 『녹색성장 원조 도시』, 『슈퍼브랜드, '살기 좋은 도시』, 『사회통합지수』 등의 전국최고 수준의 발전역량을 바탕으로 시정방향을 '쾌적한 환경도시', '창의적 교육도시', '건강한 장수도시'로 새로운 도시 비전을 형성하고자 한다. 대전의 역동성과 환경적 가치, 그리고 사회 통합적 가치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최고 도시의 반열에 오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